

이정현 4선 고비...쟁쟁한 입지자들 불꽃 경합

향소심 앞둔 이정현 행보 불투명
관록의 민주당 후보들 각축 치열
노관규·서갑원·장만채 3강 구도
조충훈·김광진 기회 엿보고 있어

2010년 이후 순천만큼 파란만장한 지역구도 없었을 것이다. 2011년 4·27 재보궐선거에서 김선동 민주노동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된 데 이어 2012년 총선에도 통합진보당 이름으로 재선(순천·곡성)에 성공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2014년 7·30 재보궐선거 치러졌다. 이번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서갑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이어 2016년 20대 총선(순천 단일 선거구)에서도 노관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3선(18대 한나라당 비례 포함) 중진이 됐다.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정현 의원은 이제 무소속으로 4선에 도전한다. 그는 조용히 블로그·페이스북 등 SNS에서 근황을 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배낭 하나 둘러메고 지역구 곳곳을 누비고 있다. 당 소속과 상관없이 팬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다고 전한다.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승리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사면초가다. 무엇보다

순천

이름	김영득	노관규	서갑원	장만채	김선동	이정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무소속
나이	59	58	57	61	51	61
약력	팔마향백리문화재단이사장	전 순천시장	지역위원장	전 전남도교육감	전 국회의원	국회의원

*사진은 정당 순, 정당 내는 가나다 순
*현직 공직자는 당적 보유 불가로 정당 표기 생략

촛불 혁명의 여파가 남아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 개입 문제로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갑원·노관규·장만채 등 전직 국회의원·시장·교육감이 나선다. 이들은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 전 시장과 서 전 의원은 순천 매산고 선후배로 2004년 17대 총선, 7·30 재보궐선거 경선 등에서 격돌한 바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노 전 시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민선 4·5기 시장을 지내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성공시킨 주역이다. 그는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특보, 민주통합당 순천·곡성 지역위원장 등을 지냈다.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정자문단 공동단장 등을 맡았다.

현재 지역위원장인 서 전 의원은 1992년 노무현 민주당 최고위원 비서로 정치에 입문해 노무현 국회의원 보좌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무 1비서관 등을 거쳤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노관규 새천년민주당 후보를 꺾은 뒤 재선까지 했다.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현 정부 인사들과 네트워크가 강집인 그는 신한대 총장을 지난달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출마 준비

에 나섰다. 이들 사이에 장 전 교육감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전직 의원·시장 모두 한 차례 이정현 의원에 패배한 상처가 있지만 장 전 교육감은 총선에서는 신인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나서 실패했으나 조직이 아직 견재하고 있다. 순천대 조교수로 교직을 시작한 그는 순천대 총장을 거쳐 16·17대 전남도 교육감을 역임했다. 이 같은 교육자 경력 때문에 어떤 후보보다 이미지가 좋게 형성된 것도 장점이다.

또 다른 민주당 후보로 김영득 팔마정백리문화재단이사장이 출마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부대변인, 노무현 대통령후보 수행실장, 순천대·한국체대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는 "문화재단 이사장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도 순천 민심을 잡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진보정당 후보로 순천에서 재선에 성공했던 민주당 김선동 전 의원도 출마 준비를 마쳤다. 그는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조직국장, 전남도당 위원장,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김 전 의원은 "노동자, 농민, 서민층을 대변하고 촛불혁명을 발전시켜 서민의 희망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료협회장을 맡고 있는 조충훈 전 순천시장과 지난달 청와대 정부비서관으로 발탁된 김광진 전 의원도 호시탐탐 출마 기회를 엿보고 있다. 김성희 기자 pleasure@srb.co.kr

대안정치 수성이나 민주당 텃밭 탈환이나

민심 다져온 정인화 재선 도전
우윤근과 리턴매치 재현되나
박근표·서동용·신희섭·안준노
민주당 후보들 경선 준비 돌입

광양·곡성·구례 지역구는 19대 총선에서는 광양·구례, 순천·곡성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20대 총선에서 곡성이 순천에서 떨어져 나와 광양·구례 쪽으로 불으면서 만들어졌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정인화 국민의당 후보가 녹색 돌풍과 함께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49.88%)로 4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37.67%)를 제쳤다.

정인화 의원은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여수시 부시장,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등을 거친 행정 관료 출신이다.

그는 2014년 6·4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광양시장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2년 후 방향을 바꿔 국회에 입성한 후 국민의당 원내정책부대표·전남도당 위원장, 민주평화당 사무총장·원내 부대표 등을 지냈다. 이후 평화당을 탈당, (가) 대안정치 소속으로 제 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이다. 꾸준히 '금귀월래(금요일에 지역구에 내려가서 민심을 살피고 월요일 아침에 서울로 돌아가는)'를 실천하며 바다 민심을 다져왔고 최근에는 160억원 규모의 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따내 지역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을 받

광양·곡성·구례

이름	김재휴	박근표	서동용	신희섭	안준노	정인화
정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가칭)대안정치
나이	68	58	55	60	58	62
약력	전 보성부군수	전 YTN 시청자센터장	변호사	전 전남도의원	전 문화관광후보 노동특보	국회의원

*사진은 정당 순, 정당 내는 가나다 순
*현직 공직자는 당적 보유 불가로 정당 표기 생략

고 있다.

정 의원의 재선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인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후보는 우윤근 전 의원이다.

우 전 의원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4년 17대 총선 광양·구례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등을 거쳤다.

하지만, 우 전 의원과 정인화 의원의 리턴매치(재대결)가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우 전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 전 의원은 "주러시아대한국대사관 대사를 퇴임한 지 두 달 밖에 안 됐다. 부담도 아직 안 해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요즘은 강의 계획이 많아 열심히 강

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출마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처럼 우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확실치 않자 민주당 후보를 노리는 입지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몰리고 있다. 김재휴 전 보성부군수, 박근표 전 YTN 시청자센터장, 신희섭 전 전남도의원, 서동용 변호사, 안준노 전 문재인대통령후보 노동특보 등이 경선 준비에 여념이 없다.

김재휴 전 보성부군수는 "각 마을과 행사장을 방문해 겸손한 마음으로 인사 드리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2010년 6·2지방선거 광양시장 예비후보로 도전했던 그는 광양녹색미래연구원장, 전남도청 부이사관, 조선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박근표 전 YTN시청자센터장은 "지난 4~5년간 주말을 이용해 사람들을 만났고 올해 1월부터

는 퇴임 후 광양에 상주하며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코리아헤럴드 기자·YTN 보도국 스포츠부장·사회부장·총무국장 등을 지난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서동용 변호사는 고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며 지역민과 호흡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 경선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그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 법조계에 진출했으며 경찰청 학교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법률지원단 위원,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법률인권특보,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거쳤다.

'소통 정치 통한 생활 입법'을 슬로건으로 내건 신희섭 전 전남도의원도 출마 준비를 마쳤다. 19대 총선 무소속 출마에 이어 두번 째 도전이다. 그는 목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4·5대

전남도의회 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전남도당 대변인, 통일미래연구원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광양시5·18민주유공자회회장을 맡고 있다.

안준노 전 문재인대통령후보 노동특보도 지역에서 몇 차례 선거에 나선 경험을 바탕으로 지지 기반 확장에 힘쓰고 있다. 그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한국노동 부산본부 상임부위원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를 지냈으며 노무현재단 전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대행인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은 우윤근 전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박상욱 전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김종대 전 전남도당부위원장과 민주당 유현주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고심 중이다. 김성희 기자 pleasure@srb.co.kr

2019 달빛(광주·대구) 청년들의 광주 명소 투어

달빛 청년 어울림 한마당

날 짜
· 2019. 10. 11(금) ~ 12(토), 1박 2일

대 상
· 광주·대구 청년 (각 40명/총 80명, 선착순 모집)

코 스
· 1일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광주비엔날레 ▶ 와이즈파크 ▶ 팽근마을양동시장 ▶ 빛고을아트스페이스
· 2일차 : 빛고을아트스페이스 ▶ 광주공원 ▶ 천연염색체험 ▶ 시상식

참가문의
· 무등일보 사업국 062)606-7778

참 가 비
· 무료 (호텔 숙박, 기념품, 단체티 중점)

주 최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주 관 : 광주문화재단
후 원 : 무등일보, 每日新聞社, 엠디에스엔씨